

일간 수소 이슈 브리핑

- '26.8.31, 한국수소연합 국제협력실 -

◇ 매일 국내·해외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수소에너지 및 수소경제 관련 주요 이슈를 선별·요약하여 배포함

□ 국내

○ LNG·암모니아 선박용 고효율 배기가스 정화장치, 1MW급 선박 엔진서 지상 실증 ('26.8.27, 동아사이언스)

-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임동하 박사 연구팀은 액화천연가스·암모니아 추진선박의 배기가스를 정화하는 금속 지지체 기반 스마트 촉매 플랫폼을 개발해 1MW급 선박 엔진에서 지상 실증을 완료함
- 연구팀은 엔진부하 75% 조건에서 질소산화물을 98.8%, 아산화질소를 72.1% 저감했으며 기존 세라믹 지지체 대비 촉매 사용량 55%, 모듈 수 24%, 반응기 부피 30%를 줄임
- 연구팀은 금속 박판 지지체로 반응면적을 넓히고 압력손실을 줄였으며 고주파 유도가열 기술을 적용한 파일릿 설계를 바탕으로 극지선박·수소·철강 등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임

○ 신재생 틀서 수소 뺀다...재생에너지 법체계 개편 ('26.8.27, 가스신문)

-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을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바꾸는 부령 제54호를 공포함
- 개정 시행규칙은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설비 범위에서 제외하고 관련 지원·관리 체계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며 9월 18일부터 시행됨

- 정부는 기존 사업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 제한과 설비 인증 수수료 지원 등에 경과조치를 두고 제도 전환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의 권리와 지원 연속성을 보장함

○ 제주TP, 차세대 그린수소 기술개발 중간 성과 점검
(’26.8.28, 에너지플랫폼뉴스)

- 제주테크노파크는 차세대 그린수소 기술개발 2차년도 중간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9개 참여기관의 기술개발 현황과 실증계획을 검토함
- 참여기관은 0.25MW급 수전해 스택 2기와 제어시스템을 설계하고 비귀금속 수소전극의 수소투과도와 활성을 높이는 소재·전극 기술을 개발함
- 연구진은 인공지능 기반 그린수소 통합플랫폼 구조와 지능형 부하적응 제어기를 설계하고 수전해 실증에 필요한 취수시설 기본설계를 추진함

○ 동서발전, 청정수소 인증제도 대응기술교류회 개최
(’26.8.28, 에너지데일리)

- 한국동서발전은 27일부터 28일까지 강원 동해시에서 한국기계 전기전자시험연구원·고등기술연구원·에너지경제연구원·강원대학교와 청정수소 인증제도 대응 기술교류회를 개최함
- 참석기관은 청정수소 인증제와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 재개, 수소경제법 개정에 대응해 수전해 설비·수소저장합금·연료전지의 인증과 실증기술을 공유함
- 참석자들은 그린수소 연구개발 실증현장과 북평 열공급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설비를 둘러보고 청정수소 생산·저장·활용 기술의 사업화 협력방안을 논의함

□ 해외

- [호주] 인터컨티넨탈에너지, 호주 초대형 그린수소 프로젝트 환경 허가 신청 철회 ('26.8.28, Hydrogen Insight)
 - 인터컨티넨탈에너지는 호주 재생에너지허브에서 그린수소·암모니아를 생산하기 위해 제출했던 유일한 환경허가 신청을 철회해 2026년 8월 17일 해당 심사절차가 종료됨
 - 회사는 이번 철회가 5년 전 중단한 구형 허가경로를 정리한 행정조치이며 현재 허가는 풍력·태양광 15GW만 포함하지만 2028년 최종 투자결정과 2030년 첫 전력생산 목표는 유지된다고 설명함
 - 전체 사업은 풍력·태양광 26GW와 전해조를 구축해 연간 그린수소 160만 톤을 생산하는 구상이며 이는 약 16GW의 전해조 설비에 해당함
 - 철회된 2020년 변경허가 신청은 연간 그린수소 200만 톤과 암모니아 약 1,000만 톤 생산, 담수화시설과 태양광 설비 확대를 포함했음
 - 인터컨티넨탈에너지는 BP가 2025년 철수하고 CWP글로벌 지분을 인수한 뒤 단독 소유주가 됐으며 1단계는 1GW 풍력·태양광 전력공급에 집중하고 분다리 지역에서 수소 사전기본설계를 진행 중임



< 사진: 호주 재생에너지허브 조감도, 출처: AREH·InterContinental Energy >

○ [인도] 룩셈부르크 iPC, 인도 카르나타카에 1GW 그린수소 프로젝트 제안
(’26.8.27, Fuel Cell Works)

- 룩셈부르크 iPC는 인도 카르나타카주 벵갈루루·투마쿠루 회랑에 1GW 그린수소·전력 복합단지와 최대 2,250MW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를 조성하는 3단계 투자안을 제안함
- 총 투자액은 8조 3,480억 루피인 약 99억 3,000만 달러(약 120조 원)이며 1단계에는 1조 7,114억 루피인 약 20억 4,000만 달러(약 25조 원)를 투입해 200MW 데이터센터 2곳과 500MW 그린수소 설비를 구축할 계획임
- iPC는 토지와 정책 승인을 전제로 2028년 4분기 1단계 가동을 목표로 하며 전체 사업 완료 시 그린수소 설비 1,000MW와 데이터센터 약 2,250MW를 운영할 계획임
- 1단계는 데이터센터·수소시설·완충구역에 총 1,000에이커가 필요하고 하루 1,300만 리터의 물 중 85%를 처리수로 조달할 계획이나 주 그린수소 정책 2024~2029는 아직 승인되지 않음
- 주정부는 최대 2조 루피(약 29조 원) 규모의 보조금 가능성과 고용·세수 효과를 검토하고 있으나 수소설비는 1억 루피(약 14억 원) 투자당 직접고용이 15~20명 수준이며 현재 제안은 협의단계로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음



< 사진: iPC 구르시 쿤단 최고경영자와 카르나타카주 M.B. 파틸 장관 면담,
출처: M.B. Patil >